



장애의 극복

그리고 숨겨진 이야기

“장애인(Disabled):
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,
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
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
어려움이 있는 사람.”

국어사전에 올라와 있는 장애인의 정의이다.
그렇다면, 이런 장애인의 생활 모습은 어떨까?



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,
아마도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일 것이다.



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.



실제로는 장애인들은 많은 불편을 안고 살아가며,
이 중 대부분은 비장애인의 인식에 의해서 생기기도 한다.

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
광주 인화학교 사건,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며,

장애인을 무조건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아
멀쩡히 잘 가던 휠체어를 말도 없이 밀어주는 사례도
보고된 적 있었다.

이는 장애인에게 있어 큰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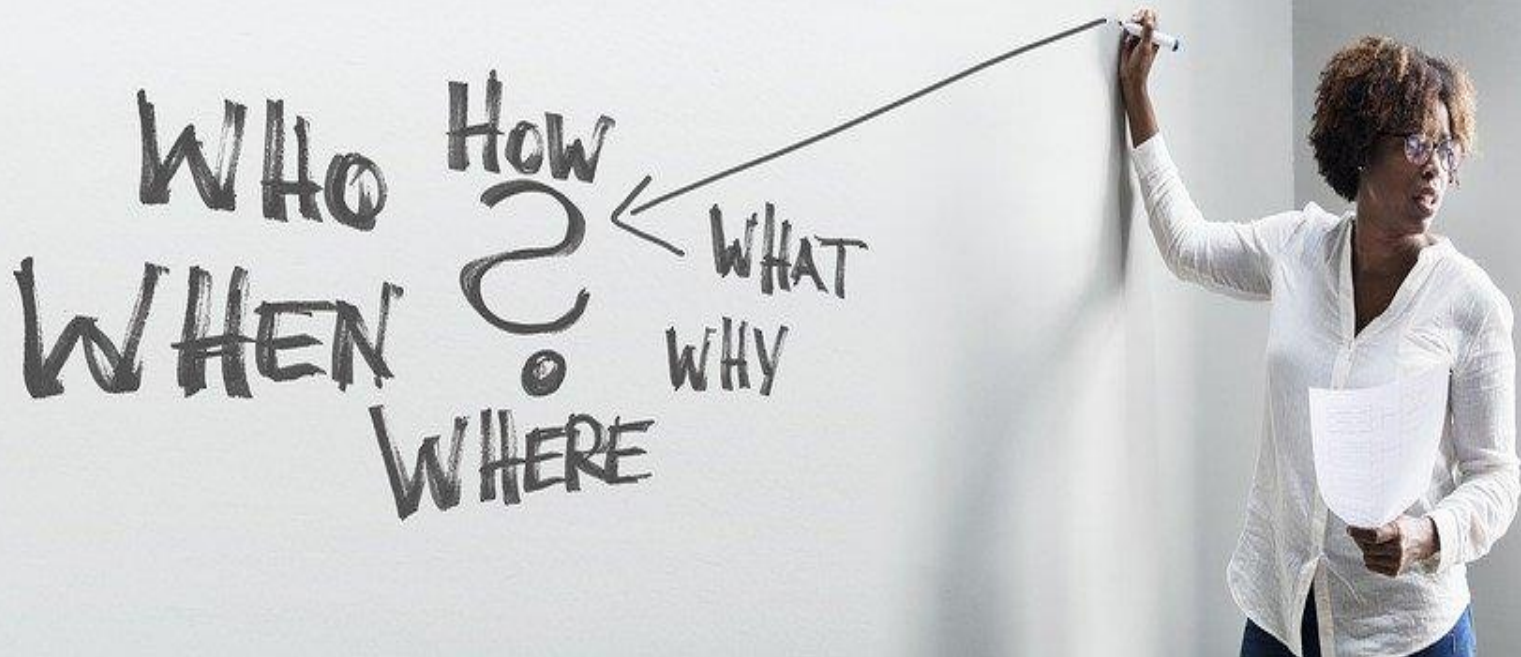
장애인도 엄연한 “사람”이다.
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누릴 수 있다.



인권 침해 행위는 엄연히 범죄이다.
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,
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.

이러한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,
우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.

당장 이 카드뉴스에서,
장애인의 이미지를 휠체어로 표현했지만
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
“왜 장애인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지?”
라는 생각도 못했을 것 아닌가?



가장 간단한 해결 방안 중 하나는,
학교 등의 단체에서 장애 인식 교육을 하는 것이다.

이는 여러 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
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.

물론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러한 교육 자료에 대한
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.

이 카드뉴스를 통해
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길 바란다.